

■ 르포 / 태풍 '힌남노' 내습한 날... 침수·정전 이어진 '공포의 밤'

“엄청난 바람소리 정말 무서웠어요”

하수구 역류하고 빗물 유입에 침수피해 속출 강풍에 전선 끊어지면서 1만8000여 가구 정전

“3~4일 전부터 비가 내릴 때 도로에서도 물이 넘어왔다. 어제는 많은 비에 하수구까지 역류하며 지하로 물이 들어갔고 어쩌면 좋을지 큰일이다.”

80대 어르신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배수작업을 하던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고 지하 바닥에는 아직 다 퍼내지 못한 물이 흥건했다.

6일 오전 제주시 삼양동의 건물 침수 현장은 발목이 잠길 정도의 빗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난 5일 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호우에 하수구에서 역류한 빗물과 도로에서 넘어온 빗물까지 속절없이 지하 창고로 쏟아져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56분쯤 침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배수펌프를 이용 약 20t가량의 배수 지원을 실시했다.

창고로 사용한 건물 지하는 침수

로 인해 물품 피해가 발생했으며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들어왔던 빗물의 흔적이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태풍 힌남노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한라산 뒷세오름에 1180mm, 제주시 오등동 379.5mm, 표선면 가시리 410mm 등 제주 전역에 많은 비를 뿌렸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오전 11시까지 총 42회의 배수 지원을 실시해 407t의 빗물을 퍼냈다.

태풍과 함께 찾아온 정전으로 칠곡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시 환경면 판포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5일 밤 11시 30분쯤 정전이 시작돼 6일 아침 9시까지 이어졌다”며 “엄청난 바람소리에 공포감을 느꼈고 캠핑용 랜턴에 의지해 버틴 지옥같은 밤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주시 연동에서 정전 피해를 입



침수 피해를 입자 물을 빼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 한 건물 지하 모습. 김도영기자

은 3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태풍 때도 정전이 있었는데 올해가 더 심한 것 같다”며 “밤새 잠을 설치며 길고 긴 태풍의 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힌남노가 지나간 제주는 5일 밤부터 1만80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17분쯤 제주시 인화동 일대 15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을 시작으로 6일 현재 제주시 건입동과 한림읍 협재

리, 조천읍 조천리, 애월읍 상가·중엄리를 비롯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하례리, 대정읍 신도·무릉·신평·영락리 등 모두 1만8053가구(제주시 1만3845가구·서귀포시 4208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정전은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빗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전력 측은 정전이 발생하자마자 긴급 복구에 나섰으며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모든 전선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이틀 연속 500명대 코로나 확진

제주 최근 일주일 전주 대비 3600여명 감소

제주지역에서 이틀 연속 일일 5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567명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564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61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5992명이 확진됐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56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주 대비 3648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0~9세(10.3%), 10~19세(15.0%), 20~29세(11.3%), 30~39세(13.0%), 40~49세(15.6%), 50~59세(13.3%), 60~69세(10.7%), 70~79세(6.5%), 80세 이상(4.3%)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4819명이며 이중 4796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5명, 치명률은 0.06%를 나타내고 있다. 강다혜기자

도내 초·중·고 20개교 시설 태풍 피해

“학생 안전위해 신속 복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도내 초·중·고 20개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집계한 6일 오전 기준 피해 현황에 따르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20개교에서 지붕 마감재 부분 파손 등 피해가 있었다.

강풍에 의한 지붕 등 마감재가 떨어진 피해를 입은 학교 10개교, 교내 나무가 쓰러진 학교 3개교, 운동장 내 태양광 가로등이 부러진 학교 1개교, 체육관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학교 2개교 등이다. 이 기간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 휴업 등 등교 중지가 실시되면서 다행히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



업 차질은 빚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광수 교육감은 강풍으로 본관 서측 지붕 마감재 일부가 파손된 노형중학교(사진), 건물 지붕 덮개와 3층 외부 마감재 일부가 탈락한 조천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 학생 안전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선희기자

제주 6756명 수능 접수 지난해보다 238명 줄어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의 제주지역 응시원서 접수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6756명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도교육청,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도내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6756명이 제출했다. 자격별로는 재학생 5092명, 졸업생 1475명, 검정고시 등 189명이다. 성별로는 남학생 3409명, 여학생 33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접수 인원 6994명에 비해 238명이 줄어든 것이다. 자격별로는 재학생 294명, 검정고시 등 5명이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61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120명, 여학생 118명이 각각 줄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안전파수꾼 의용소방대 '맹활약'

취약지역 순찰·점검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 큰 힘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피해 복구 적극 나설 것”

제주의용소방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 사진

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의용소방대는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총 1431명을 투입, 제주 곳곳에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장섰다. 제주의용소방대는 특히 65세 이



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인 돌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태풍 피해 예방에 선제 대응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의용소방대

전문강사가 전담 투입돼 피해 취약 요인 제거 및 주거지 사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 활동에는 의용소방대 전문강사 508명이 투입돼 491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무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개발사업·비닐하우스 증가 등 물 수요 급증으로 수자원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 최초의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물 부족을 해소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도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사람으로, 물과 함께하는 세상!

제주형 통합 물관리로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제주 지하수를 물려줍니다.

제주 지하수는 다음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